

口舌脣齒질환에 대한 한국 침구서적의 치료법 비교 연구

한창현 · 안상영 · 권오민 · 박상영 · 이정현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학정보연구본부 문헌연구센터

A Literature Study on the Korean Acupuncture for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Chang-Hyun Han · Sang-young Ahn · Oh-min Kwon · Sang-young Park · Jeong-hyeon Lee · Sang-woo Ahn

Background : The varieties of manifestations referred to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has been long complicated physicians in the efficient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se diseases. Acupuncture has been widely used in Korea throughout the history and provides an efficient method in the treatment of them

Objectives : Establish a distinctive and efficient acupuncture method for the treatment of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based in literature research

Method : We reviewed four Korean medical literature, 『Guide to Swollen Sore Treatment』,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Experiential Prescription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Essential Rhymes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y Master Sa-am』, and analyzed the therapeutic characteristics in the treatment of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 Result** : 1. According to 『Guide to Swollen Sore Treatment』, we could noted frequent application of blood letting methods in the affected area, then rinse ones mouth with salty water and further application of taro plaster. Also found acupuncture methods utilizing heated mole cricket or silkworm in the sublingual region. Regarding herbal method, Realgar was rubbed in the affected area. Mainly used acupuncture points in the treatment of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were GV20, GB20, LU5, and auricular anterior hairline
2. In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blood letting method in the sublingual region and burning needle searing method were the most frequently applied in the treatment of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Moxibustion was also applied in the treatment of labial and dental diseases. Particularly, said to apply 3 moxa cones in ear zones of both sides, when no medicine is effective. This demonstrates how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oxibustion in this kind of disease. Mainly used acupuncture points were GV16, CV24, LI4, EX-HN12, and EX-HN13
3. In 『Experiential Prescription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no other methods beside

wrist. Superstitious methods like applying moxibustion on the tooth picture drawn on the roofing tile need further confirmation. Mainly used acupuncture points were LI4, ST36, and HT7.

4. 『Essential Rhymes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y Master Sa-am』, identified the cause of diseases according to visceral pattern identification. Stomach and Spleen in charge of vocal, lingual, and labial disease, Kidney for dental disease, and further scrutinizing identification according to Liver, Heart, Stomach, Lung, and Kidney manifestations. Used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needling methods of self meridians and other correlating meridians.

Conclusions : After previous study on stroke and eye diseases, we could also find various efficient methods according to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f korean medical classics. This study will concurrently result in establishing distinctive therapeutic method characteristic of Korea.

Key words :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Acupuncture, Moxibustion.

1. 서 론

날로 증가하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그에 따른 전신질환의 증가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사회적 의학적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데, 구강질환 역시 내용과 종류를 불문하고 그 다양성은 임상가에게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¹⁾. 최근 전신질환과 구강질환과의 관련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²⁾³⁾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된 질병의 치료에만 치우치고 건강증진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건강증진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를 돕는 저작기능이다⁴⁾.

독일 속담에 “口腔은 신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음미해 보면 모든 신체적 조건이 양호함과 불량함이 구강 내에 즉시 반영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몸이 고단하거나 소화가 잘 안되거나 만족할 만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혀에 백태가 생긴다든지, 편도선에 종창이 온다든지,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환자 초진 시에 거의 구강상태를 검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⁵⁾.

또한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중의 하나라 하여 치아의 건강을 중요시 여겼음을 잘 알고 있으며, 『鷄林類事』의 “齒刷曰養支”란 기록에서 지금의 양치질이란 말의 기원이 된다⁶⁾고 하였으니,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려시대에 이미 양치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 근대 치의학은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2, E-mail: answer@kiom.re.kr)

• 접수 2010/03/15 • 수정 2010/03/24 • 채택 2010/03/29

- 1) 전양현, 어규식, 홍정표. 전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상관관계. 대한구강내과학회지. 2008;33(2):111-120.
- 2) 전양현, 홍정표. 전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구강질환 의뢰상태에 관한 연구. 경희의학. 2002;18(1):55-62.
- 3) 전양현, 홍정표. 입원한 전신질환자의 구강질환 진료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03;41(4):268-276.
- 4) 김진범. 구강보건사업과 건강증진.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22-26.
- 5) 高鑣洙. 한방의학에서 중요시해야 할 치과질환 -혀(舌)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 1971;36:1-4.
- 6) 진태하. 계림유사(鷄林類事)의 오사(誤寫) 오석(誤釋) 미해독 어휘고.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1982:82-84.

1876년 개항이후 서구의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는데, 1885년 알렌이 제증원을 운영하면서 拔齒를 시술한 것이 한국근대치의학의 효시라 할 수 있다⁸⁾. 이러한 근대 치과의학으로부터 발전된 현대의 치과치료는 치아의 보존과 보철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단순하게 독립된 구강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적인 관점에서 口舌唇齒의 치료를 한다⁹⁾.

따라서 한의학적 口舌唇齒치료에 있어서 침구서적을 살펴보고 현대치료에 응용할 만한 것을 찾아낸다면, 한의학의 새로운 영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논자는 현존하는 고전의학문헌 중 한국침구의 독자성과 전문의서로 자료가치가 있는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舍岩鍼法』에서 口舌唇齒疾患의 각 병증에 대한 치료를 발간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鍼, 灸, 療法 별로 比較 考察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2. 연구 방법

- 1) 고전의학문헌 중 한국침구의 독자성과 전문의서로 자료가치가 있는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舍岩鍼法』을 비교하였다.
- 2) 口舌唇齒疾患의 각 병증에 대하여 발간연대에 따라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舍岩鍼法』 순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 3) 인용한 문구는 “ ”로 표기하였다.

3. 본 론

1) 口部

(1) 口瘡

① 『治腫指南·面瘡 附口舌瘡』¹⁰⁾

“牙齦爛瘡” → 療法：“當處刺去惡血，齒間亦刺，塩湯漱口，良久還吐。又針百會或尺澤·耳前髮際亦佳。”

② 『東醫寶鑑·口舌·鍼灸法』¹¹⁾

“口瘡” → 療法：“取承漿，合谷，人中，長強。又取金津玉液各出血。『綱目』”，“取委中，瀉後谿，此二穴，乃心火腎水二經之表。『綱目』”，“膽俞，小腸俞各灸七壯。又刺太衝，勞宮。『東垣』”

③ 『鍼灸經驗方·口部』¹²⁾

“口中生瘡” → 療法：“承漿 勞宮”

④ 『校勘 舍岩道人鍼法·口病』¹³⁾

“口中生瘡” → 療法：“液門·中渚 補，勞宮·承漿 瀉。”

(2) 口不開

① 『治腫指南·牙關緊急』¹⁴⁾

“牙關緊急” → 療法：“牙關不開者，初得，頰車項中發腫。已差後，其根因發，牙關緊急，不得開口，則其偏尺澤·風池上·耳前髮際·頰車等穴，或大迎·承漿·合谷等穴，皆針後灸之，甚佳。”

② 『鍼灸經驗方·口部』¹⁵⁾

“口噤牙車不開” → 療法：“上關頰車阿是”

7) 정유용, 김홍균. 향약구급방의 구설치는 질환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8;21(2):79-93.
 8) 辛在義. 한국치의학사연구. 참운. 2005.8:55.
 9) 정유용, 김홍균. 향약구급방의 구설치는 질환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8;21(2):79-93.
 10) 임연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09.
 11)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12)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13)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14) 임연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22.
 15)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3) 口中出血

『鍼灸經驗方·口部』¹⁶⁾

“口中出血不止” → 療法：“上星五十壯 風府鍼三分”

“口鼻并出血” → 療法：“亦灸上星”

(4) 기타

『鍼灸經驗方·口部』¹⁷⁾

“口中如膠” → 療法：“大谿”

“口苦” → 療法：“下三里絕骨然谷神門”

2) 舌部

(1) 舌腫瘡

① 『治腫指南·面瘡 附口舌瘡』¹⁸⁾

“舌瘡” → 療法：“先針百會，塩湯漱口，良久還吐。若甚至爛瘡，形似稍腫，則耳前髮際及尺澤，針之。又當處，淺刺去毒血。然，甚重者，可刺，不甚則慎之。”

② 『東醫寶鑑·口舌·鍼灸法』¹⁹⁾

“舌腫如猪胞” → 療法：“以鍼刺舌下兩傍大脈，血出即消。切勿刺中央脈，血不止則死。若誤刺，以銅筋，火燒烙之。或醋調百草霜，塗之，須臾自消。此患人多不識，失治則死。『得效』”

“舌腫” → 療法：“舌下，必有噤蟲，狀如螻蛄臥蠶，有頭有尾，頭少白，可燒鍼烙烙頭上即消。『三因』”

“舌腫脹甚” → 療法：“先刺舌尖，或舌上，或舌傍出血。惟舌下廉泉穴禁鍼。『回春』”

“舌腫難言” → 療法：“取廉泉，金津玉液，各以三稜出血，又取天突，少商，然谷，風府。『綱目』”

(2) 重舌裂

① 『治腫指南·重舌』²⁰⁾

“重舌” → 療法：“當腫處，舌下縫中兩傍橫刺。或在縫一傍，只刺一傍，又百會·耳前髮際·尺澤等穴針後，塩湯，待冷含漱乃吐，頻頻易含。若甚者，風池上亦針。又重舌挺端一二處針之，決破亦佳。若有餘毒侵痛，翌日更針。若針治得差，後因得舌根不仁，且不得語，當舌下兩傍刺之，漸漸立消。或間三四日更針，徐徐治之，塩湯逐日漱口。”

“舌上腫起” → 療法：“疼痛處針破，或成膿則針後，塩湯漱口。觀病勢，重則百會·上星·耳前髮際，或尺澤·風池上，或耳後髮際·青絡脉等穴，量意隨證施針。”

“重舌向差時，當處，若堅無害” → 療法：“則漸漸自消。若堅而不消，更針取出毒氣，最佳。”

“若不針尺澤，則其毒發起，因發喉腫” → 療法：“先針當處，及刺百會·耳前髮際·尺澤等穴，必効。”

“重舌及喉腫甚重，頤下頸上連外腫大” → 療法：“當腫處兩傍，橫刺泄毒，土卵磨傅。”

② 『鍼灸經驗方·口部』²¹⁾

“重舌舌裂舌強” → 療法：“舌者心之竅也 神門隱白三陰交”

③ 『校勘 舍岩道人鍼法·口病』²²⁾

“裂舌” → 療法：“液門 補，中渚 瀉。”

“重舌” → 療法：“陰谷 曲泉 補，間使 瀉..”

(3) 舌緩涎出

① 『治腫指南·舌緩涎出』²³⁾

“舌緩涎出” → 療法：“或舌根兩傍，或舌下絲中兩

16)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17)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18) 임연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09.

19)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20) 임연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88-89.

21)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22)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23) 임연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13.

傍, 針之再次, 立愈. 若舌忽腫, 口外脹出, 則以手執舌, 當舌中兩傍各一二處針之, 或舌端亦針, 即令冷水浸漬, 良久舌熱漸歇, 則令放其手, 舌還口中, 塩湯浸洗, 必効..”

① 『東醫寶鑑·口舌·鍼灸法』²⁴⁾

“舌縱涎下” → 療法：“取陰谷.『綱目』”

(4) 기타

『東醫寶鑑·口舌·鍼灸法』²⁵⁾

“舌卷” → 療法：“取液門, 二間.『綱目』”

“舌急” → 療法：“取痙門, 舌緩, 取風府.『資生』”

3) 脣部

(1) 脣不開合

① 『東醫寶鑑·口舌·鍼灸法』²⁶⁾

“緊脣不能開合” → 療法：“灸手虎口, 男左女右. 又灸承漿三壯.『得效』”

② 『鍼灸經驗方·口部』²⁷⁾

“脣吻不收” → 療法：“合谷下三里”

③ 『校勘 舍岩道人鍼法·口病』²⁸⁾

“脣吻不收” → 療法：“頰車·三里 補.”

(2) 脣腫瘡

① 『治腫指南·面瘡 附口舌瘡』²⁹⁾

“脣瘡” → 療法：“先針百會, 口內亦有瘡處, 淺刺盡取惡血後, 塩湯漱口. 又當處, 或傅土卵膏亦佳.”

② 『治腫指南·脣腫』³⁰⁾

“脣腫” → 療法：“初發腫痛時, 先針百會·尺澤【中絡】, 又刺當腫處. 然則毒氣尤爲加腫, 而經夜即消. 若腫勢輕歇, 只傅土卵膏, 亦針百會·尺澤. 若甚者, 當腫一二處刺之. 凡下針時, 先以柎木兩箇, 挾其脣絃, 當脣縫立絲兩傍針之, 鋒則廣以刺之. 若脣內腫者, 即針內邊一二處; 若脣外腫者, 即針脣端一二處, 廣以直刺, 洩毒氣了, 塩湯浸漬. 若臨差, 餘毒猶在脣頰間, 則當堅硬處, 間日針之, 塩湯逐日漱口, 効.”

③ 『鍼灸經驗方·口部』³¹⁾

“脣腫” → 療法：“內關神門合谷下三里內庭三陰交”

(3) 기타

『校勘 舍岩道人鍼法·口病』³²⁾

“上脣 屬胃” → 療法：“三里·中脘 補, 解溪·上廉瀉.”

“下脣 屬脾” → 療法：“章門 補, 少府 瀉, 太白斜.”

4) 齒部

(1) 齒痛

① 『治腫指南·齒痛』³³⁾

“齒痛” → 療法：“曲池上一寸, 點一穴, 灸三壯, 左邊灸左, 右邊灸右, 左右俱痛, 灸兩臂上, 甚佳. 若牙痛, 連頰腫痛, 甚至項痛, 則其尺澤·耳前髮際, 刺之, 又頰內及牙齦處刺後, 塩湯漱口, 又土卵膏傅外頰.”

24)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25)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26)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27)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28)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29) 임연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09.

30) 임연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86.

31)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32)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33) 임연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2-93.

㉞ 『東醫寶鑑·牙齒·鍼灸法』³⁴⁾

“齒寒痛” → 療法：“手陽明之別，名曰偏歷，主齒寒痛，宜取此。『內經』”

“齒痛” → 療法：“灸列缺七壯，永不疼。又灸肩髃七壯。又灸耳垂下，牙盡骨上，三壯。『得效』”

“齒痛” → 療法：“以線量手中指，至掌後橫紋，折爲四分，去三分，將一分，於橫紋後臂中灸三壯，隨左右。『得效』”

㉟ 『鍼灸經驗方·齒部』³⁵⁾

“上齒痛” → 療法：“下三里 灸七壯”

“下齒痛” → 療法：“合谷 灸七壯”

“上下齒痛” → 療法：“并灸手表腕上髁骨尖端三壯 若不愈 更灸七壯 左痛灸右 右痛灸左 神效”，“灸痛齒七壯 慎勿加灸 必患附骨疽”，“取片瓦畫人口形 又明計病人上下齒之元數 以墨筆畫記於畫口內 仍察痛齒第幾而 當於畫齒上 灸三七壯 不數日 立差神效”

㊱ 『校勘 舍岩道人鍼法·齒痛』³⁶⁾

“上齒痛” → 療法：“通谷 內庭 補 陽谷 解谿 瀉”

“下齒痛” → 療法：“陰陵泉 尺澤 補 三里 絕骨 瀉”

(2) 齒齲

㊲ 『治腫指南·齒齲』³⁷⁾

“齒齲腫，宣連頰外腫” → 療法：“當內齲腫處刺，去惡血，外頰，傅土卵膏。或百會及其邊耳前髮際·尺澤，針之，塩湯，或山梅子根皮煎水漱口，良久還吐，甚佳。若連內外頰腫，不得開口，亦不能言，則當齲腫處針破，外頰傅土卵膏，立効。”

㊳ 『東醫寶鑑·牙齒·鍼灸法』³⁸⁾

34)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52.

35)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7-98.

36)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33.

37) 임언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4.

38)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52.

39)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7-98.

40) 임언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2-93.

41)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52.

“上齒齲” → 療法：“手陽明，有入口徧齒者，名曰大迎，下齒齲取之。足太陽，有入口徧齒者，名曰角孫，上齒齲取之。『得效』”

“口齒蝕生瘡” → 療法：“灸承漿。『正傳』”

㊴ 『鍼灸經驗方·齒部』³⁹⁾

“齒齲痛” → 療法：“合谷列缺厲兌中渚神門下三里”

(3) 기타

㊵ 『治腫指南·齒痛』⁴⁰⁾

“齲底無齒處腫痛，牙關不開，連外頰腫” → 療法：“先針百會·耳前髮際·尺澤後，刺當處，塩湯漱口，良久還吐，俗名【설인이】。若牙齒爲物所撲，發腫疼痛，上連頭痛，先針當處，及刺百會·耳前髮際，必効。”

“乳兒賊齒” → 療法：“發牙齲上，狀如黍米，色白，或生肉中，挺如黍大。故其兒不吮乳汁，是其驗也。用細針，盡取白膜後，石雄黃末擦之，立効。若妄治殺人。俗名【니뽕】。或舌下喉間及齒齲內外，或上下腭中發，無定處，須審針治。【虫蝕瘡同法】”

㊶ 『東醫寶鑑·牙齒·鍼灸法』⁴¹⁾

“牙痛牙槽” → 療法：“取太谿灸之，治上牙齒痛。二間灸之，治下牙痛。委中鍼之，又足內踝兩尖灸之，治上牙痛。龍玄，在列缺上青脈中，灸之，治下牙痛。承漿，風府，合谷，內庭，治上牙痛。『綱目』”

“牙疼” → 療法：“屈手大指，本節後陷中灸三壯。初灸覺牙疼，再灸覺牙有聲，三灸疼止永不復作。恐是陽谿穴也。左疼灸右，右疼灸左。『資生』”

“牙疼” → 療法：“百藥不效，灸兩耳，當三壯立止。『回春』”

© 『鍼灸經驗方·齒部』 42)

“齒斷腐” → 療法：“合谷中脘下三里并鍼 承漿七壯 勞宮一壯”

4. 고 찰

구강치료에 관해서 奇昌德⁴³⁾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당시 수입된 의서인 『千金方』이나 『外臺秘要』에 구강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고 했다. 이로써, 구강치료에 관한 의료행위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려시대에는 보다 발전된 구강치료술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李漢水⁴⁴⁾는 고려시대는 주술적인 요법이 널리 성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주문으로 불경의 「佛說呪齒經」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 지긋이 응시하는 定心住⁴⁵⁾의 방법과도 유사하여, 주문을 외우면서 치통을 깊이 살펴보아 치료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金斗鍾⁴⁶⁾은 『鄉藥救急方』 중에 이미 「齒蚘」이란 항목이 따로 되어 있으며, 『鄉藥集成方』 중의 「口舌門」에는 『三和子方』, 「齒牙門」에는 『鄉藥簡易方』, 『御醫撮要方』, 『三和子方』 등이 인용되어 口腔, 齒科의 전문적 부분에 관한 처방을 논하였다고 하였다⁴⁷⁾.

침구분야는 오랜 역사를 지니는 동양의학의 양대 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여러 시대와 지역을 통

해 多技多樣하게 발전해 왔다⁴⁸⁾. 이러한 침구의학은 오랜 시간적 지리적 차이에 따라 여러 의가들에 의해 多樣한 발전과 多岐한 유파를 형성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침구역사 또한 외래적인 이론의 수용과 자체적인 경험을 잘 접목해 가며 고유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침을 맞는다, 뜸을 뜬다, 부항을 붙인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낯설지 않은 친숙한 표현들이다. 우리네 사람들은 오랜 기간을 이 땅에서 이런 치료수단을 사용하며 질병에 맞서 왔고, 침구치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관심과 신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⁴⁹⁾.

『治腫指南』은 조선 중기 한국의학의 독자적인 외과처치법이 담겨져 있는 외과전문서로 『治腫秘方』의 원작자인 任彦國의 親作 혹은 그의 弟子가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任彦國의 醫論은 후대 『醫林撮要』,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같은 조선의 대표의서에 반영되었을 뿐 만 아니라 중국의 『鍼灸集成』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⁵⁰⁾. 任彦國은 嘉靖(1522~1566) 사람으로, 어떤 늙은 중에게서 침법을 전수받았는데 특히 중기 치료에 탁월하였다 하니 아마도 일반적인 針醫의 기술과는 크게 달랐던 것 같다⁵¹⁾.

『東醫寶鑑』은 朝鮮 중기 許浚이 저술한 종합의 방서로서, 많은 의가들의 다양한 의서들을 섭렵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의서이다. 이 『東醫寶鑑』에는 醫論과 醫方 외에 鍼灸治療에 대한 많

42)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7-98.

43) 奇昌德. 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64.

44) 李漢水. 한국치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146.

45) 이는 불가의 『능엄경(楞嚴經)』에 나오는 용어로, 지혜의 밝음을 잡아가져서 두루두루 맑고 고요하여 그 고요하고 오묘한 것이 항상 영거 있음을 “정심주(定心住)”라고 한다고 하였다.

46)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169.

47) 정유용, 김홍균. 향약구급방의 구설치는 질환에 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2008;21(2):79-93.

48) 박문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49) 박문현.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 한국사학회지. 2000;13(1):73-102.

50) 서지연, 김남일. 임언국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한국사학회지. 2007;20(2):34-41.

51)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84-86.

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러한 『東醫寶鑑』의 鍼灸篇과 鍼灸法篇은 조선중기 침구의학의 발전을 반영하는 저작임과 동시에 조선 침구학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저작이다⁵²⁾.

朝鮮中期 仁祖以前까지는 주로 중국의 醫書를 그대로 模倣한 것이 주류였으나 仁祖以後부터는 우리의 鍼灸分野에 있어서 自家의 經驗을 중심으로 獨創적인 著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仁祖22년때 許任이 著述한 『鍼灸經驗方』과 『鍼灸經驗方』以後라고 추정되는 『舍岩鍼法』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⁵³⁾. 許任은 鍼의 補瀉에 있어 呼吸補瀉와 더불어 刺入과 出納의 量을 제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자신의 經驗을 기초로 후세 사람들이 응용하기 편리하도록 『鍼灸經驗方』을 저술하였다⁵⁴⁾⁵⁵⁾. 許任의 本貫은 陽川이며 樂工 許億福의 아들로 태어나 宣祖 光海君 兩代에 걸쳐 임금을 보필한 뛰어난 鍼醫이다⁵⁶⁾. 신분을 문제 삼는 司憲府 司諫院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宣祖는 그를 內醫院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그 功을 인정받아 正3品 通政大夫라는 東班의 품계를 받아 堂上官에 올랐으며 이후 2품의 官職에까지 올라 牧民官이 되어 麻田郡守를 역임했다는 기록을 보면 뛰어난 鍼醫로서의 許任에 대한 宣祖의 信望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⁷⁾.

舍岩은 약 420년 전 朝鮮 光海君代에 생존한 僧醫로 추측되며 姓名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단지 號를 舍岩이라 하였고, 석굴에서 득도하여 俗名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四溟堂松雲大師의 제자로만 알려져 있다. 舍岩鍼法은 舍岩 선생에 의

해 체계화 되었고 임진왜란을 전후로 일본에 건너가서 五行鍼이란 명칭으로 보급되었다⁵⁸⁾. 舍岩鍼法의 이론은 그 근거를 難經에 두고 있는데, 이는 즉 ‘虛하면 母를 補하고, 實하면 子를 瀉한다(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는 원칙이다. 여기에서 舍岩鍼法은 『難經』의 치료원칙보다 한차원 높은 방법을 발전시켰으니 즉, ‘虛則補其母’원칙에 ‘瀉其官’이론을 추가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肝이 虛하면 補其母하고 더하여 肝木의 官에 해당하는 肺金의 經渠와 肝木의 金穴인 中封을 瀉하는 것이다. 반대로 實하면 ‘實則瀉其子’원칙에 추가하여 ‘補其官’하니 예를 들어 肝이 實하면 瀉其子하고 더하여 肺金의 金穴인 經渠와 肝木의 金穴인 中封을 補한다. 또한 舍岩鍼法은 變方을 잘 활용하였는데, 이는 正세의 변화에 따라서 원칙처방을 변화시키는 ‘應用處方’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본 연구에서는 고전의학문헌 중 한국침구의 독자성과 전문의서로 자료가치가 있는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舍岩鍼法』에서 口舌脣齒疾患관련 病症에 대한 치료를 발간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鍼, 灸, 療法별로 比較 考察하였다.

1) 病症에 따른 침 치료 비교

(1) 口部

㉠ 口瘡

『治腫指南·面瘡 附口舌瘡』⁶⁰⁾에서는 “牙齦爛瘡”의 鍼處穴로 “針百會或尺澤·耳前髮際亦佳”를

52) 오준호, 차웅석, 김남일. 동의보감 침구편의 의사학적 고찰. 한국사학회지. 2004;17(1):119-141.

53) 김달호, 김중환. 사암침법의 형성시기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2;6(6):7-33.

54) 김달호, 김중환. 사암침법의 형성시기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2;6(6):7-33.

55) 서정철. 한국침구학의 사적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6;13(1):234-235.

56) 이희승의. 한국인명대사전. 서울:신구문화사. 1986:1013.

57) 박세정, 안창범.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고찰. 동의한의연. 1997;1:149-176.

58) 조세형. 사암침법체계적연구. 서울:성보사. 1986:32-3.

59) 김달호. 圖解校勘舍岩道人鍼法. 부산:소강. 2002:8-17.

60) 임연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회연구원. 2008:109.

제시하였고, 『東醫寶鑑·口舌·鍼灸法』⁶¹⁾에서는 “口瘡”에 “取承漿, 合谷, 人中, 長強”, “取委中, 瀉後谿, 此二穴”, “刺太衝, 勞宮”을 제시하였다. 『鍼灸經驗方·口部』⁶²⁾에서는 “口中生瘡”에 “承漿 勞宮”을 제시하였고, 『校勘 舍岩道人鍼法·口病』⁶³⁾에서는 “口中生瘡”에 “液門·中渚 補, 勞宮·承漿 瀉”를 제시하였다.

⑥ 口不開

『治腫指南·牙關緊急』⁶⁴⁾에서는 “牙關緊急”에 “尺澤·風池上·耳前髮際·頰車等穴, 或大迎·承漿·合谷等穴, 皆針後灸之, 甚佳”를 제시하였고, 『鍼灸經驗方·口部』⁶⁵⁾에서는 “口噤牙車不開”에 “上關 頰車 阿是”를 제시하였다.

⑦ 口中出血

『鍼灸經驗方·口部』⁶⁶⁾에서는 “口中出血不止”에 “風府鍼三分”이라 하여 구체적인 깊이도 제시하였다.

⑧ 口中如膠

『鍼灸經驗方·口部』⁶⁷⁾에서는 “口中如膠”에 “大谿”를 제시하였다.

⑨ 口苦

『鍼灸經驗方·口部』⁶⁸⁾에서는 “口苦”에 “下三里 絕骨 然谷 神門”을 제시하였다.

(2) 舌部

④ 舌腫瘡

『治腫指南·面瘡 附口舌瘡』⁶⁹⁾에서는 “舌瘡”에 “先針百會, 耳前髮際及尺澤, 針之”라 하였고, 『東醫寶鑑·口舌·鍼灸法』⁷⁰⁾에서는 “舌腫難言”에 “取天突, 少商, 然谷, 風府”를 제시하였다.

⑤ 重舌裂

『治腫指南·面瘡 附口舌瘡』⁷¹⁾에서는 “重舌”에 “百會·耳前髮際·尺澤等穴針”과 “若甚者, 風池上亦針”을, “舌上腫起”에 “病勢, 重則百會·上星·耳前髮際, 或尺澤·風池上, 或耳後髮際·青絡脉等穴, 量意隨證施針”이라 하여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시침할 것을, “若不針尺澤, 則其毒發起, 因發喉腫”에 “先針當處, 及刺百會·耳前髮際·尺澤等穴, 必效”를 제시하였다. 『鍼灸經驗方·口部』⁷²⁾에서는 “重舌 舌裂 舌強”에 “神門 隱白 三陰交”를 제시하였고, 『校勘 舍岩道人鍼法·口病』⁷³⁾에서는 “裂舌”에 “液門 補, 中渚 瀉”를, “重舌”에 “陰谷 曲泉 補, 間使 瀉”를 제시하였다.

⑥ 舌緩涎出

『治腫指南·舌緩涎出』⁷⁴⁾에서는 “舌緩涎出”에 “或舌根兩傍, 或舌下絲中兩傍, 針之再次, 立愈. 若舌忽腫, 口外脹出, 則以手執舌, 當舌中兩傍各一二處針之, 或舌端亦針”이라 하여 설근의 양옆이나 혀 아래 봉합선[絲中]의 양옆에 침을 제차 놓으면 바로 낫는다고 하였고, 『東醫寶鑑·口舌·鍼灸

61)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62)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63)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64) 임연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22.
65)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66)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67)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68)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69) 임연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09.
70)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71) 임연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09.
72)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73)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74) 임연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13.

法』⁷⁵⁾에서는 “舌縱涎下”에 “取陰谷”을 제시하였다.

㉔ 舌卷

『東醫寶鑑·口舌·鍼灸法』⁷⁶⁾에서는 “舌卷”에 “取液門, 二間”을 제시하였다.

㉕ 舌急

『東醫寶鑑·口舌·鍼灸法』⁷⁷⁾에서는 “舌急”에 “取壙門, 舌緩, 取風府”를 제시하였다.

(3) 脣部

㉖ 脣不開合

『鍼灸經驗方·口部』⁷⁸⁾에서는 “脣吻不收”에 “合谷下三里”를 제시하였고, 『校勘 舍岩道人鍼法·口病』⁷⁹⁾에서는 “脣吻不收”에 “頰車·三里 補”를 제시하였다.

㉗ 脣腫瘡

『治腫指南·脣腫』⁸⁰⁾에서는 “脣瘡”에 “先針百會·尺澤, 又刺當腫處. 然則毒氣尤爲加腫, 而經夜即消. 若腫勢輕歇, 只傳土卵膏, 亦針百會·尺澤. 若甚者, 當腫一二處刺之. 凡下針時, 先以柵木兩箇, 挾其脣絃, 當脣縫立絲兩傍針之, 鋒則廣以刺之. 若脣內腫者, 卽針內邊一二處; 若脣外腫者, 卽針脣端一二處, 廣以直刺, 洩毒氣了”라고 하여 우선 백회와 척택에 침을 놓고 또 부은 부위에도 자침하고 침을 놓을 때에는 싸리나무 2개로 입술 경계를 끼운 후 튀어나온 입술 경계의 양옆에 침을 놓되 침 끝을 넓게 자침한다고 하였다. 『鍼灸經驗方·口部』⁸¹⁾에서는 “脣腫”에 “內關 神門 合谷 下三里 內庭 三陰交”를 제

시하였다.

㉘ 上脣 屬胃

『校勘 舍岩道人鍼法·口病』⁸²⁾에서는 “上脣”은 위에 속하므로 “三里·中脘 補, 解溪·上廉 瀉”할 것을 제시하였다.

㉙ 下脣 屬脾

『校勘 舍岩道人鍼法·口病』⁸³⁾에서는 “下脣”은脾에 속하므로 “章門 補, 少府 瀉, 太白 斜”할 것을 제시하였다.

(4) 齒部

㉚ 齒痛

『治腫指南·齒痛』⁸⁴⁾에서는 “齒痛”에 “若牙痛, 連頰腫痛, 甚至項痛, 則其尺澤·耳前髮際, 刺之”라고 하여 어금니가 아프되 뺨까지 이어져서 부으면서 아프고 심하게는 뒷목까지 아픈 경우에는, 환측 척택과 귀 앞쪽 발제에 자침한다고 하였다. 『東醫寶鑑·牙齒·鍼灸法』⁸⁵⁾에서는 “齒寒痛”에 “手陽明之別, 名曰偏歷, 主齒寒痛, 宜取此”라고 하며 치아가 시리고 아플 때는 수양명이 갈라지는 곳, 즉 편력을 쓴다고 하였다. 『校勘 舍岩道人鍼法·齒痛』⁸⁶⁾에서는 “上齒痛”에 “通谷 內庭 補 陽谷 解谿 瀉”를, “下齒痛”에 “陰陵泉 尺澤 補 三里 絕骨 瀉”를 제시하였다.

㉛ 齒齲

『治腫指南·齒齲』⁸⁷⁾에서는 잇몸이 붓고 부기가 퍼져서 뺨까지 부어오르는 “齒齲腫, 宣連頰外

75)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76)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77)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78)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79)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80) 임연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86.

81)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82)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83)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84) 임연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2-93.

85)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52.

86)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33.

Table 1. Comparison of Acupuncture Treatment in Respect of Diseases.

구분	병증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校勘 舍岩道人鍼法
口部	口瘡	*針百會或尺澤·耳前髮際亦佳	*取承漿·合谷·人中·長強 *取委中·馮後谿, 此二穴 *刺太衝, 勞宮	*承漿·勞宮	*液門·中渚 補, 勞宮·承漿 瀉
	口不開	*尺澤·風池上·耳前髮際·頰車等穴, 或大迎·承漿·合谷等穴, 皆針後灸之, 甚佳		*上關·頰車·阿是	
	口中出血			*風府鍼三分	
	기타 口中如膠			*大谿	
	口苦			*下三里·絕骨·然谷·神門	
舌部	舌腫瘡	*先針百會, 耳前髮際及尺澤, 針之	*又取天突·少商·然谷·風府		
	重舌裂	*百會·耳前髮際·尺澤等穴針後 *若甚者, 風池上亦針 *病勢, 重則百會·上星·耳前髮際, 或尺澤·風池上, 或耳後髮際·青絡筋等穴, 量意隨證施針 *先針當處, 及刺百會·耳前髮際·尺澤等穴, 必効		*神門·隱白·三陰交	*液門 補, 中渚 瀉 *陰谷·曲泉 補, 間使 瀉
	舌緩涎出	*或舌根兩傍, 或舌下絲中兩傍, 針之再次, 立愈. 若舌忽腫, 口外脹出, 則以手執舌, 當舌中兩傍各一二處針之, 或舌端亦針	*取除谷		
	기타 舌卷			*取液門·二間	
	舌急			*取經門·舌緩, 取風府	
唇部	唇不開合			*合谷·下三里	*頰車·三里 補
	唇腫瘡	*先針百會·尺澤, 又刺當腫處. 然則毒氣尤爲加腫, 而經夜即消. 若腫勢輕歇, 只傅土胡膏, 亦針百會·尺澤. 若甚者, 當腫一二處刺之. 凡下針時, 先以柎木兩筒, 挾其唇絃, 當唇縫立絲兩傍針之, 鋒則廣以刺之. 若唇內腫者, 即針內邊一二處; 若唇外腫者, 即針唇端一二處, 廣以直刺, 洩毒氣了			*內關·神門·合谷·下三里·內庭·三陰交
	기타 上唇 屬胃 下唇 屬脾				*三里·中脘 補, 解溪·上廉 瀉 *章門 補, 少府 瀉, 太白 斜
齒部	齒痛	*若牙痛, 連頰腫痛, 甚至項痛, 則其尺澤·耳前髮際, 刺之	*手陽明之別, 名曰偏歷, 主齒疼痛, 宜取此		*通谷 內庭 補 陽谷 解谿 瀉 *陰陵泉 尺澤 補 三里 絕骨 瀉
	齒齲	*百會及其邊耳前髮際·尺澤, 針之	*手陽明, 有入口徧齒者, 名曰大迎, 下齒齲取之. 足太陽, 有入口徧齒者, 名曰角孫, 上齒齲取之	*合谷·列缺·厲兌·中渚·神門·下三里	
	기타 齲底無齒處腫痛, 牙關不開, 連外頰腫	*先針百會·耳前髮際·尺澤後, 刺當處 *先針當處, 及刺百會·耳前髮際, 必効			
	牙痛牙槽			*承漿·風府·合谷·內庭, 治上牙痛	
	齒斷腐				*合谷·中脘·下三里 并鍼

腫”의 경우에 “百會及其邊耳前髮際·尺澤, 針之”를 제시하였고, 『東醫寶鑑·牙齒·鍼灸法』 88)에서는 “齒齲”에 “手陽明, 有入口徧齒者, 名曰大迎, 下齒齲取之. 足太陽, 有入口徧齒者, 名曰角孫, 上齒齲取之”라고 하여 아랫니의 충치에는 대영을 윗니의 충치에는 각손을 쓴다고 하였다. 『鍼灸經驗方·齒部』 89)에서는 “齒齲痛”에 “合谷 列缺 厲兌 中渚

神門 下三里”를 제시하였다.

◎ 齲底無齒處腫痛, 牙關不開, 連外頰腫

『治腫指南·齒痛』 90)에서는 “齲底無齒處腫痛, 牙關不開, 連外頰腫” 즉 잇몸 바닥의 이가 없는 부분이 붓고 아파서 입을 악다물고 뺨까지 이어져서 붓는 경우에 “先針百會·耳前髮際·尺澤後, 刺當處”와 “先針當處, 及刺百會·耳前髮際, 必効”를 제

87)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4.

88)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52.

89)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7-98.

90)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2-93.

시하였다.

④ 牙痛牙槽

『東醫寶鑑·口舌·鍼灸法』⁹¹⁾에서는 치통이나 잇몸이 아픈 “牙痛牙槽”에 “承漿, 風府, 合谷, 內庭, 治上牙痛”을 제시하였다.

⑤ 齒斷腐

『鍼灸經驗方·口部』⁹²⁾에서는 “齒斷腐”에 “合谷中腕下三里并鍼”을 제시하였다.

각 서적에 나타난 증상별 침 치료를 비교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病症에 따른 뜬 치료 비교

『校勘 舍岩道人鍼法』에서는 灸法에 대한 언급이 없어 『治腫指南』과 『東醫寶鑑』과 『鍼灸經驗方』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口部

④ 口瘡

『東醫寶鑑·口舌·鍼灸法』⁹³⁾에서는 “口瘡”에 “膽俞, 小腸俞各灸七壯”을 제시하였다.

⑥ 口不開

『治腫指南·牙關緊急』⁹⁴⁾에서는 입을 악다무는 “牙關緊急”에 “尺澤·風池上·耳前髮際·頰車等穴, 或大迎·承漿·合谷等穴, 皆針後灸之, 甚佳”를 제시하였다.

⑦ 口中出血

『鍼灸經驗方·口部』⁹⁵⁾에서는 “口噤牙車不開”와 “口鼻并出血”에 “上星五十壯”을 제시하였다.

(2) 脣部

④ 脣不開合

『東醫寶鑑·口舌·鍼灸法』⁹⁶⁾에서는 “緊脣不能開合”에 “灸手虎口, 男左女右, 又灸承漿三壯”이라 하여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손의 호구에 뜬을 뜨거나 혹은 승장에 뜬을 3장 뜬다고 하였다.

(3) 齒部

④ 齒痛

『治腫指南·齒痛』⁹⁷⁾에서는 “齒痛”에 “曲池上一寸, 點一穴, 灸三壯, 左邊灸左, 右邊灸右, 左右俱痛, 灸兩臂上, 甚佳”라고 하여 왼쪽 이빨이 아프면 왼팔에 뜬을 뜨고 오른쪽 이빨이 아프면 오른팔에 뜬을 뜨고 좌우 이빨 모두 아프면 두 팔에 다 뜬을 뜨면 매우 좋다고 하였다. 『東醫寶鑑·牙齒·鍼灸法』⁹⁸⁾에서는 “齒痛”에 “灸列缺七壯, 永不疼, 又灸肩髃七壯, 又灸耳垂下, 牙盡骨上, 三壯”이라 하여 치통에는 열결에 뜬을 7장, 혹은 견우에 뜬을 7장 뜨거나 귓볼 아래, 치아가 끝나는 뼈 위에 뜬을 3장 뜬다고 하였고, 또 다른 방법으로 “以線量手中指, 至掌後橫紋, 折爲四分, 去三分, 將一分, 於橫紋後臂中灸三壯, 隨左右”라고 하여 가운뎃 손가락에서 손목 횡문까지의 거리를 끈으로 재어 횡문에서 팔뚝 쪽으로 그 4분의 1만큼 간 곳에 뜬을 3장 뜬다고 하였다.

『鍼灸經驗方·齒部』⁹⁹⁾에서는 “上齒痛”에 “下三里灸七壯”을, “下齒痛”에 “合谷灸七壯”을, “上下齒痛”에 “并灸手表腕上髁骨尖端三壯 若不愈 更灸七壯 左痛灸右 右痛灸左 神效”와 “灸痛齒七壯 慎勿加灸

91)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92)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93)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94) 임연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22.
 95)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0-91.
 96)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97) 임연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2-93.
 98)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52.
 99)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7-98.

必患附骨疽”와 “取片瓦畫人口形 又明計病人上下齒之元數 以墨筆盡記於畫口內 仍察痛齒第幾而 當於畫齒上 灸三七壯 不數日 立差神效”라고 하여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 손등 쪽 손목 위 도드라진 뼈 뿔쪽한 끝에 뜬을 3장 뜬다. 또한 아픈 이빨에 뜬을 7장 뜨는데, 더 뜨면 반드시 부풀저가 생기게 되니 더 뜨지는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한 방법은 기와조각에 사람의 입을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의 원래 상하 이빨수를 분명히 세어서 그 그려진 입 안에 기록한 다음 아픈 이가 몇 번째인지를 살펴서 해당되는 그려진 이빨 위에 뜬을 3.7장 뜨면 며칠 되지 않아 차도가 있는 신기한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㉞ 齒齲

『東醫寶鑑·牙齒·鍼灸法』¹⁰⁰⁾에서는 치아가 썩어 창이 생기는 “口齒蝕生瘡”에 “灸承漿”을 제시하였다.

㉟ 牙痛牙槽

『東醫寶鑑·牙齒·鍼灸法』¹⁰¹⁾에서는 “牙痛牙槽”에 “取太谿灸之, 治上牙齒痛. 二間灸之, 治下牙痛. 委中鍼之, 又足內踝兩尖灸之, 治上牙痛. 龍玄, 在列缺上青脈中, 灸之, 治下牙痛”이라 하여 태계나 안쪽 복숭아뼈 꼭대기에 뜬을 뜨면 윗니의 치통이 낫고 이간이나 용천에 뜬을 뜨면 아랫니의 치통이 낫는다고 하였다.

㊱ 牙疼

『東醫寶鑑·牙齒·鍼灸法』¹⁰²⁾에서는 “牙疼”에 “屈手大指, 本節後陷中灸三壯. 初灸覺牙疼, 再灸覺牙有聲, 三灸疼止永不復作. 恐是陽谿穴也. 左疼灸右, 右疼灸左”와 “百藥不效, 灸兩耳, 當三壯立止”를

제시하였다.

㊲ 齒斷腐

『鍼灸經驗方·齒部』¹⁰³⁾에서는 “齒斷腐”에 “承漿七壯 勞宮一壯”을 제시하였다.

각 서적에 나타난 증상별 뜬 치료를 비교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3) 病症에 따른 鍼灸이외의 療法

『鍼灸經驗方』과 『校勘 舍岩道人鍼法』에서는 鍼灸 이외의 療法에 대한 언급이 없어 『治腫指南』과 『東醫寶鑑』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口部

㊳ 口瘡

『治腫指南·面瘡 附口舌瘡』¹⁰⁴⁾에서는 “牙齦爛瘡”에 대해 “當處刺去惡血, 齒間亦刺, 塩湯漱口, 良久還吐”라고 하여 환처에 자침하여 나쁜 피를 없애고 이빨 사이에도 자침한 다음, 끓인 소금물로 입을 행구고 한참 있다가 도로 뱉어내라고 하였고, 『東醫寶鑑·口舌·鍼灸法』¹⁰⁵⁾에서는 “口瘡”에 “取金津玉液 各出血”을 제시하였다.

(2) 舌部

㊴ 舌腫瘡

『治腫指南·面瘡 附口舌瘡』¹⁰⁶⁾에서는 “舌瘡”에 “塩湯漱口, 良久還吐”, “淺刺去毒血. 然, 甚重者, 可刺, 不甚則慎之”라고 하여 병세가 매우 무거운 경우에는 자침을 해도 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침을 삼간다고 하였다. 『東醫寶鑑·口舌·鍼灸

100)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52.
101)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52.
102)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52.
103)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2006:97-98.
104) 임언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09.
105)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106) 임언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09.

Table 2. Comparison of Moxibustion Treatment in Respect of Diseases.

구분	病症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口部	口瘡		*膽俞·小腸俞各灸七壯		
	口不開	*尺澤·風池上·耳前髮際·頰車等穴, 或大迎·承漿·合谷等穴, 皆針後灸之, 甚佳			
	口中出血			*上星五十壯	
脣部	脣不開合		*灸手虎口, 男左女右. 又灸承漿三壯		
齒部	齒痛	*曲池上一寸, 點一穴, 灸三壯, 左邊灸左, 右邊灸右, 左右俱痛, 灸兩臂上, 甚佳	*灸列缺七壯, 永不疼. 又灸肩髃七壯, 又灸耳垂下, 牙盡骨上, 三壯 *以線量手中指, 至掌後橫紋, 折爲四分, 去三分, 將一分, 於橫紋後臂中灸三壯, 隨左右	*下三里 灸七壯 *合谷 灸七壯 *并灸手表腕上髌骨尖端三壯 若不愈 更灸七壯 左痛灸右 右痛灸左 神效 *灸痛齒七壯 慎勿加灸 必患附骨疽 *取片瓦畫人口形 又明計病人上下齒之元數 以墨筆盡記於畫口內 仍察痛齒第幾而 當於畫齒上 灸三七壯 不數日 立差神效	
	齒齲		*灸承漿		
	기타	牙痛牙槽		*取太谿灸之, 治上牙齒痛. 二間灸之, 治下牙痛. 委中鍼之, 又足內踝兩尖灸之, 治上牙痛. 龍玄, 在列缺上青脈中, 灸之, 治下牙痛	
		牙疼		*屈手大指, 本節後陷中灸三壯. 初灸覺牙疼, 再灸覺牙有聲, 三灸疼止永不復作, 恐是陽谿穴也. 左疼灸右, 右疼灸左 *百藥不效, 灸兩耳, 當三壯立止	
齒斷腐				*承漿七壯 勞宮一壯	

法』¹⁰⁷⁾에서는 “舌腫如豬脰”에 “以鍼刺舌下兩傍大脈, 血出即消. 切勿刺中央脈, 血不止則死”를 제시하였고, “舌腫”에 “舌下, 必有噤蟲, 狀如螻蛄臥蠶, 有頭有尾, 頭少白, 可燒鍼烙烙頭上即消”라고 하여 혀 밑에 땅강아지나 누에같이 생긴 벌레를 불에 달군 침으로 지지면 없어진다고 하였다. “舌腫難言”에 “取廉泉, 金津玉液, 各以三稜出血”이라 하였으며, “舌腫脹甚”에 “先刺舌尖, 或舌上, 或舌傍出血. 惟舌下廉泉穴禁鍼”을 제시하였다.

⑥ 重舌裂

『治腫指南·重舌』¹⁰⁸⁾에서는 “重舌”에 “當腫處,

舌下縫中兩傍橫刺. 或在縫一傍, 只刺一傍”과 “重舌挺端一二處針之, 決破亦佳”와 “塩湯逐日漱口”를, “舌上腫起”에 “疼痛處針破, 或成膿則針後, 塩湯漱口”를, 중설과 후종이 심하여 턱밑과 목 위쪽에서 밖으로 걸쳐서 크게 부은 “重舌及喉腫甚重, 頤下頸上連外腫大”에 “當腫處兩傍, 橫刺泄毒, 土卵磨傅”라고 하여 부은 부위의 양쪽 옆에 침을 뉘어서 찔러 독을 쏟아내고 토관을 갈아서 붙인다고 하였다.

◎ 舌緩涎出

『治腫指南·舌緩涎出』¹⁰⁹⁾에서는 “舌緩涎出”에 “令冷水浸漬, 良久舌熱漸歇, 則令放其手, 舌還口中,

107)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108)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88-89.

塩湯浸洗, 必効”라고 하여 혀를 찬물에 담가 한참 있다가 혀의 열이 점차 가시면 혀를 잡았던 손을 놓고 혀를 입속으로 도로 집어넣은 다음, 끓인 소금물에 담가 씻으면 반드시 효험을 본다고 하였다.

(3) 脣部

㉔ 脣腫瘡

『治腫指南·面瘡 附口舌瘡』¹¹⁰⁾에서는 “脣瘡”에 “口內亦有瘡處, 淺刺盡取惡血後, 塩湯漱吐. 又當處, 或傅土卵膏亦佳”라고 하여 입속에도 혈은 곳이 있으면 얇게 자침하여 나쁜 피를 모두 뽑아낸 후 끓인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뺨어내며 혹 토란고를 붙여도 좋다고 하였고, 『治腫指南·脣腫』¹¹¹⁾에서는 “脣腫”에 “塩湯浸漬, 若臨差, 餘毒猶在脣頰間, 則當堅硬處, 間日針之, 塩湯逐日漱口, 効”를 제시하였다.

(4) 齒部

㉕ 齒痛

『治腫指南·齒痛』¹¹²⁾에서는 “齒痛”에 “又頰內及牙齦處刺後, 塩湯漱口, 又土卵膏傅外頰”이라 하여 입안의 뺨과 어금니의 잇몸에 자침한 후에 끓인 소금물로 입을 헹구어내고 뺨에 토란고를 붙인다고 하였다.

㉖ 齒齲

『治腫指南·齒齲』¹¹³⁾에서는 “齒齲腫, 宜連頰外腫”에 “當內齲腫處刺, 去惡血, 外頰, 傅土卵膏”와 “塩湯, 或山梅子根皮煎水漱口, 良久還吐, 甚佳. 若連內外頰腫, 不得開口, 亦不能言, 則當齲腫處針破, 外頰傅土卵膏, 立効”라고 하여 입안의 잇몸이 부은

부위에 자침하여 나쁜 피를 뽑아내고 뺨에 토란고를 붙이거나 끓인 소금물이나 산매자 뿌리와 껌질을 달인 물로 입을 헹구고 한참 있다가 도로 뺨어내면 매우 좋다고 하였다.

㉗ 齲底無齒處腫痛, 牙關不開, 連外頰腫

『治腫指南·齒痛』¹¹⁴⁾에서는 “乳兒賊齒”에 “用細針, 盡取白膜後, 石雄黃末擦之, 立効”라고 하여 가는 침으로 흰 막을 모두 거뒀던 후 석웅황 가루로 문질러주면 즉시 효험을 본다고 하였다.

각 서적에 나타난 병증에 따른 침구이외의 요법을 비교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이상으로 고전의학문헌 중 한국침구의 독자성과 전문의서로 자료 가치가 있는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校勘 舍岩道人鍼法』에서 口舌脣齒疾患관련 病症에 대하여 鍼, 灸, 療法 별로 比較 하였다. 최근 口舌脣齒疾患관련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고의 의학서적인 『鄉藥救急方』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¹¹⁵⁾ 하지만 외치 및 내복약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을 뿐 침구요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임상에서 침구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학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前績을 끊임없이 발굴, 정리하고 축적하여 많은 임상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헌적인 뒷받침과 임상활용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口舌脣齒疾患 뿐 아니라 다른 病症에 대해서도 조사함으로써 한국 침구치료법의 확립과 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09)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13.

110)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109.

111)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86.

112)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2-93.

113)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4.

114) 임언국. 치중지남, 치중비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8:92-93.

115) 정유용, 김홍균. 향약구급방의 구설 치은 질환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8;21(2):79-93.

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t Therapeutic Methods Except Moxibustion and Acupuncture.

구분	病症	治腫指南	東醫寶鑑
口部	口瘡	*當處刺去惡血, 齒間亦刺, 塩湯漱口, 良久還吐	*取金津玉液各出血
舌部	舌腫瘡	*淺刺去毒血. 然, 甚重者, 可刺, 不甚則慎之 *塩湯漱口, 良久還吐	*以鍼刺舌下兩傍大脈, 血出即消. 切勿刺中央脈, 血不止則死 *舌下, 必有瘰蟲, 狀如蠅蛄臥蠶, 有頭有尾, 頭少白, 可燒鍼烙頭上即消 *取廉泉, 金津玉液, 各以三稜出血. *先刺舌尖, 或舌上, 或舌傍出血. 惟舌下廉泉穴禁鍼
	重舌裂	*當腫處, 舌下縫中兩傍橫刺. 或在縫一傍, 只刺一傍 *重舌挺端一二處針之, 決破亦佳 *塩湯逐日漱口 *疼痛處針破, 或成膿則針後, 塩湯漱口 *當腫處兩傍, 橫刺泄毒, 土卵磨傅	
	舌緩涎出	*令冷水浸漬, 良久舌熱漸歇, 則令放其手, 舌還口中, 塩湯浸洗, 必効	
脣部	脣腫瘡	*口內亦有瘡處, 淺刺盡取惡血後, 塩湯漱口. 又當處, 或傅土卵膏亦佳 *塩湯浸漬. 若臨差, 餘毒猶在脣頰間, 則當堅硬處, 間日針之, 塩湯逐日漱口, 効	
齒部	齒痛	*又頰內及牙齦處刺後, 塩湯漱口, 又土卵膏傅外頰	
	齒齲	*當內齲腫處刺, 去惡血, 外頰, 傅土卵膏 *塩湯, 或山梅子根皮煎水漱口, 良久還吐, 甚佳. 若連內外頰腫, 不得開口, 亦不能言, 則當齲腫處針破, 外頰傅土卵膏, 立効	
	乳兒賊齒	*用細針, 盡取白膜後, 石雄黃末擦之, 立効	

5. 결 론

국내 침구서적 중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校勘 舍岩道人鍼法』에서 口舌脣齒疾患관련 病症의 침구치료를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治腫指南』에서는 口舌脣齒疾患관련 病症치료에 있어서 환처에 자침하여 나쁜 피를 없앤 후 끓인 소금물로 입을 행구고 뱉어내며 토란고를 붙이는 요법이 자주 활용되었고, 혀 밑을 불에 달군 침으로 지지기도 하였으며, 石雄黃 가루로 문질러주기도 하였다. 침구 혈위로는 百會, 風池, 耳前髮際, 尺澤 등의 혈이 주로 사용되었다.
- 2) 『東醫寶鑑』에서는 口舌疾患에 舌下를 瀉血하거나 燒鍼烙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고, 脣齒疾患에는 뜸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牙疼에는 百藥不効하니 兩耳에 뜸 3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침구 혈위로는 風府, 承漿, 合谷, 金津玉液 등의 혈이 주로 사용되었다.
- 3) 『鍼灸經驗方』에서는 鍼灸의 療法은 활용되지 않았으며, 齒疾患 중 齒痛에는 灸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직접 아픈 이에 뜨거나, 아프지 않은 쪽 손목위에 뜨기도 하였다. 또 한 방법으로 기와조각 위에 이를 그러서 그 위에 뜨기도 하였다. 침구 혈위로는 合谷, 下三里, 神門 등의 혈이 주로 사용되었다.
- 4) 『校勘 舍岩道人鍼法』은 口舌脣은 脾胃, 齒는 腎을 중심으로 장부변증에 따라 肝心胃肺腎에

屬하는 것을 나누어 치법을 제시하였으며, 自經補瀉를 제외하고 他經補瀉만을 사용한 경우도 많았고 경험방도 자주 사용되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口舌唇齒疾患에서 침구 치료는 예전부터 다용되어 왔으며, 또한 현재 임상에서도 적절한 활용으로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6. 참고 문헌

(논문)

1. 전양현, 어규식, 홍정표. 전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상관관계. 대한구강내과학회지. 2008;33(2):111-120.
2. 전양현, 홍정표. 전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구강질환 의뢰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의학. 2002;18(1):55-62.
3. 전양현, 홍정표. 입원한 전신질환자의 구강질환 진료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03;41(4):268-276.
4. 김진범. 구강보건사업과 건강증진.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 22-26.
5. 진태하. 계림유사(鷄林類事)의 오사(誤寫) 오석(誤釋) 미해독 어휘고.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1982:82-84.
6. 정유용, 김홍균. 향약구급방의 구설치는 질환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8;21(2):79-93.
7. 高鑣洙. 한방의학에서 중요시해야 할 치과질환-혀(舌)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 1971;36:1-4.
8. 박문현. 혀임 침구경험방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9. 박문현. 혀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의과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73-102.

10. 서지연, 김남일. 임언국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07;20(2):34-41.
11. 오준호, 차용석, 김남일. 동의보감 침구편의 의과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4;17(1): 119-141.
12. 김달호, 김중환. 사암침법의 형성시기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2;6(6):7-33.
13. 서정철. 한국침구학의 사적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6;13(1):234-235.
14. 박세정, 안창범. 혀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고찰. 동의한의연. 1997;1:149-176.

(단행본)

1. 辛在義. 한국치의학사연구. 서울:참운퍼블리싱. 2005.8:55.
2. 임언국. 치종지남, 치종비방. 대전:한국한의학 연구원. 2008:86, 94, 113, 122, 88-89, 92-93, 108-109.
3. 허준.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1998:246, 252.
4. 혀임. 침구경험방. 서울:사단법인 혀임기념사업회. 2006:90-91, 97-98.
5. 김달호 편저. 교감 사암도인침법. 부산:소강. 2002:128, 133.
6. 奇昌德. 한국치과의학사. 서울:아카데미아. 1995:64.
7. 李漢水. 한국치학사.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8:146.
8.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81:169.
9. 이희승외. 한국인명대사전. 서울:신구문화사. 1986:1013.
10. 조세형. 사암침법체계적연구. 서울:성보사. 1986:32-33.
11. 김달호. 圖解校勘舍岩道人鍼法. 부산:소강. 2002:8-17.